

현 경 실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고등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실태
조사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은 하

고등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실태
조사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은 하

인 준 서

고은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대중음악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음악문화가 되었다.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은 특히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편화 되어 청소년 음악 문화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인 음악교육에 입각하여 청소년 대상의 대중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과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려는 뜻으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는 대중음악의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학교교육에서 도입된 대중음악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효율적인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음악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종류와 연주형태, 지도내용, 곡의 년대, 나라를 분석하였고 현직 교사를 인터뷰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종류가 팝송 위주의 외국곡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더 수록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대중음악의 작곡 년대가 1960~70년대의 오래된 곡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의 정서와 흥미에 맞는 곡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중음악 곡들이 미국중심의 곡들 이어서 다양한 문화권의 대중음악 수록과 그중 우리나라 곡이 많이 실려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의 교육실태와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직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의 정의는 클래식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곡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중음악의 범주와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중음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은 너무 오래되어 청소년들의 흥미와 정서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은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가사가 좋고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오래되지 않은 유명한 곡이어야 하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천 곡으로는 최근의 곡이 아닌 70~80년대의 건전가요가 대부분 이어서 이는 학생 중심의 사고가 아닌 교사 중심의 사고의 결과로 보인다. 넷째,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음악이고 수업시간에 흥미를 주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중음악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유행적 음악이 아니라 대중음악 자체로서 음악적 가치를 갖는 음악이기 때문에 쉽게 오락적으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중음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게 하여 음악을 생활화하고 음악 수업에 보다 흥미를 가지게 하여 수업을 알차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	5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5
2)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5
2. 대중음악의 정의와 종류	6
3. 선행연구 고찰	1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8
1. 연구 대상	18
1) 교과서 분석	18
2) 교사 인터뷰	18
2. 연구 도구	19
3. 연구 방법 및 절차	20

IV.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분석	22
1.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분석 및 분류	22
2.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38
1) 종류	38
2) 연주형태	39
3) 작곡 년대	40
4) 국가	41
V. 교사들의 인터뷰	44
1. 대중음악의 정의	44
2. 대중음악 교육의 유무	45
3. 교과서의 대중음악	47
4. 대중음악 교수 실태	54
VII.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대중음악과 관련된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5
<표 2>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18
<표 3> 교과서 분석내용	19
<표 4> 인터뷰 질문내용	20
<표 5> 대한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23
<표 6> 세광음악 출판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24
<표 7> 박영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26
<표 8> 현대출판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27
<표 9> 도서출판태성에 수록된 대중음악	29
<표 10> 두산에 수록된 대중음악	31
<표 11> 교학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33
<표 12> 천재교육에 수록된 대중음악	35
<표 13> 출판사별 대중음악 곡수	36
<표 14>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대중음악	37
<표 15> 대중음악 곡의 종류	39
<표 16> 대중음악 곡의 연주형태	40
<표 17> 대중음악의 작곡 년대	41
<표 18> 대중음악 곡의 국가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및 정보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중음악은 일찍이 보급된 대중매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음악문화가 되었다.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은 특히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어 청소년 음악 문화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는 TV의 대중가요 프로그램 이외에도 MTV와 뮤직 비디오의 보급으로 실황 연주회에 버금가는 방송이 24시간 방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체를 통하여 단순한 수용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전달자로서 그 역할과 범위가 차츰 넓어지고 있는 상태이다¹⁾. 이들은 학교음악보다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 문헌 조사²⁾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실에서나 집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심지어는 거리를 걸으면서 까지도 MP3플레이어나 CD플레이어를 통해 대중음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대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음향장비, 악기에 놀라운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장비, 악기가 만들어내는 사운드로 새로운 음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학교음악에서 흘러나오는 기존의 악기, 음향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학생들의 귀를 만들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예술가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1) 언론문화 저널리뷰비평17, 1995.12. 46~49쪽.

2) 전 현, 청소년의 대중음악 선호도에 대한 교육적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정진희, 대중음악 선호도와 음악적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황덕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더욱 떨어뜨려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 음악교육에 흥미를 잃게 함으로써 학교 음악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즐기는 대중음악과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과의 이중성 만들게 하여 음악환경의 혼란을 가져와 학교음악교육에 문제점을 가중 시켰다. 기성세대들은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에게 대중음악을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또는 변별력을 키워주는 교육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괄적인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대중음악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음악교육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폭 넓게 수용하는 종합적인 음악교육을 의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 잡힌 포괄적인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을 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의 음악성을 폭넓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³⁾.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인 음악교육에 입각하여 청소년 대상의 대중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과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려는 뜻으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는 대중음악의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음악의 다양한 영역을 인식하고 대중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예술음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어느 분야이든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분야와 연결되면서 그 영역이 심화되고 확대될 때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대중음악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살리고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3) 성경희, “음악교육철학의 이론적 배경”, www.amadeusclass.co.kr

4) 허수정, “음악교재곡의 다양화를 위한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자료가 교육목표와 적절한가의 여부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알아보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에서 대중음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대중음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대중음악을 분석한다.

- ①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종류와 연주형태, 작곡 년대는 어떠한가?
- ②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에 관한 이론은 어떠한가?
- ③ 교과서나 교과서 관련 자료에서 제시된 대중음악에 관한 지도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대중음악에 관한 교사 생각을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다.

- ① 교사들은 대중음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② 교사들은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교사들은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④ 교사들은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은 어떠한가?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⑤ 교사들은 대중음악과 예술음악을 가르칠 때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실태는 현행 교과서만을 조사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이 교사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중음악의 교육 실태를 모든 교사에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용어 정리

본 논문에서 대중음악이란 1900년 이후의 곡들로 유행을 타고 대중성을 띄게 된 가요, 팝송, 칸초네, 샹송, 영화음악, 뮤지컬, 흑인영가, 재즈 등의 대중음악 모두를 포함하고 이는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자료에서 대부분 대중음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5)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악곡을 다루게 되어 있다.

2)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대중음악과 관련된 교육내용은6) 이해 영역에서 형식, 활동에서는 가창, 기악, 감상이 있다. 형식의 내용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이 있으며 활동 영역에서의 내용은 가창에서 다양한 악곡을 노래 부른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는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악에서는 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가 있다. 감상에서는 다양한 악곡을 듣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뮤지컬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는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대중음악과 관련된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5)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p.29

6) 교육부, 전게서, p.46~48

영역		고등학교 음악과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체계
활동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곡을 노래 부른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곡을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 잡가, 창가,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 : 가락의 발전과 변화, 다악장 형식, 연음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 잡가/다성 음악 등의 성악곡, 실내악곡

2. 대중음악의 정의와 종류

대중음악은 모든 대중예술들이 그러하듯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들의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중들의 정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그러한 면에서 모든 대중음악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대중음악은 대중의 생활 감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그치지 않

고 한 사회, 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 지향과 행동 형태를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로브(Grove) 음악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정의는 특정의 소수 층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연주 될 수 있는 음악, 특별한 음악 이론이나 기법에 대해서 훈련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상 할 수 있는 음악, 단순한 구조와 제한된 길이, 제한된 화성 반주를 지닌 선율 위주의 음악이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음악이다⁸⁾.

대중음악은 범위와 개념에 있어서 보다 넓고 모호하다. 역사적으로 대중적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람의(of the ordinary people)’ 라는 의미를 지녔다.

대중음악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든 일이지만 로이 셔커(Roy Shuker)는 다음과 같이 대중음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⁹⁾.

첫째, 대중적인 것에 강조를 두고 정의하는 것

둘째, 대중음악의 상업적 성격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것

셋째, 일반적인 음악적, 비음악적 특성에 의하여 정의하는 것 등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대중적인 것’ 에 강조를 두고 정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중적인 것에 대한 기준과 특정한 음악 스타일과 장르로 인해 많은 논란에 빠지기 쉽다. 의심할 바 없이 클래식 음악도 충분히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대중음악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배타적인 음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양윤희, “대중음악 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변화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8) 문풍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음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제2호, 1997 p.554

9) Roy Shuker 저. 이정엽, 장호연 역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출판사, 1999 p.69~71

둘째, 대중음악의 상업적 성격에 근거한 정의로서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열쇠는 상업화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또한 잡지나 방송 등을 통해 인기 순위를 나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것에 강조를 두는 정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것은 대중성을 강조하는 정의와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음악적, 비음악적 특성에 의한 정의로써 대중음악을 주로 구전이나 악보가 아니라 음반 형태의 사운드로 저장되고 유통되는 방식, 자체의 음악 이론과 미학의 존재 여부, 작곡가의 상대적 익명성에 따라 특징짓는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작곡자의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음악 창작의 성격에 관한 시야로 확장시킨다. 사회학자들은 첫째와 둘째 측면에 집중한 반면, 음악학자들은 이 정의 가운데 세 번째 측면을 유용하게 확장시켰다. 요약하면, 대중음악을 만족스럽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사회 경제적 특징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본질적인 대중음악은 음악의 전통, 스타일, 영향 등이 서로 관여하고 기여하며 나타난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투여되는 경제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의하는 대중음악은 양식과 용어에 대해서도 시대와 유행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대중음악의 하위 그룹을 허수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¹⁰⁾.

- ① 대중가요 : 일정 기간동안 그 시대의 상황이 잘 나타난 유행가이다.
- ② 민요(Folk Song) : 토속적인 정서와 감정이 들어있는 전통적인 노래로 민중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구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 ③ 팝송(Pop Song) : 일반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음악을 말한다.
- ④ 재즈(Jazz) : 19세기말 미국남부 흑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음악으로 당김음과 즉흥연주가 특징이다.
- ⑤ 샹송(Chanson) : 프랑스어에 의한 세속적인 가곡으로 오늘날에는 프랑스

10) 허수정, “음악교재곡의 다양화를 위한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어의 파퓰러 뮤직(popular music)을 가리킨다.

- ⑥ 칸초네(Canzone) : 원래는 이탈리아의 가곡을 뜻하지만 현재는 이탈리아의 대중가요를 의미한다.
- ⑦ 뮤지컬(Musical) : 전통적인 오페레타를 이어받아 20세기 초,미국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생겨났다.
- ⑧ 영화음악(Film Music) : 영화의 구성 및 표현의 한 요소가 되는 음악이다.
- ⑨ 가스펠송(Gospel Song) : 20세기 초 미국의 침례교 흑인들 사이에서 불리워진 일종의 종교 가요이다.
- ⑩ 흑인영가(Negro Spirituals) : 미국 흑인들이 노예시절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부르기 시작한 종교적 민요이다.
- ⑪ 캐롤(Carol) : 주로 성탄절에 부르는 종교적, 계절적인 노래이다.
- ⑫ 경음악(Light Music) : 클래식음악의 소품이나 가벼운 통속성을 지닌 음악이다.
- ⑬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 작곡되는 기독교 계통의 음악이다.

또한, 허수정은 위에 언급한 대중음악의 종류 이외에도 최근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대중음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뉴에이지 음악(New Age Music) : 20세기에 실험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음악적 스타일보다는 분위기를 나타내며, 신비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오늘날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② 뉴 웨이브(New Wave): 원래 1950년대 아방가르드 영화를 일컫는 데서 비롯된 말로,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하며, 좀더 선율적이고, 좀더 친근하고, 가

사에 많은 비중을 두는 새로운 경향을 나타낸다.

③ 댄스 음악(Dance Music) : 댄스음악은 1910년경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된 관용어로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포함되며, 디스코(Disco), 펑크(Funk), 모터 타운(Moter Town), 하드 록(Hard Rock), 테크노(Techno)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테크노는 정글(Jungle), 하우스(House), 트립합(Trip Hop), 드럼 앤 베이스(Drum & Bass)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변형되었다.

④ 랩(Rap) : 랩은 1980 ~ 1990 년대에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아메리칸 음악 형식으로 70년대 뉴욕 외곽지역에 흑인 사이에서 시작된 댄스 스타일의 일부이다. 랩퍼들은 많은 음악적 원천으로부터 자신의 믹스를 만들고 음악을 반주 삼아 즉흥적인 거리의 시라는 형식으로 말을 한다.

⑤ 힙합(Hip-Hop) : 1980 ~ 1990년대 미국 도심의 흑인과 라틴 청년들의 사교, 유행, 음악, 그리고 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랩과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DJ음악클럽 등을 포함한다.

⑥ 레게(Reggae) : 일련의 자마이카 대주음악 형태에 대한 용어로, 자마이카 토착 포크음악과 재즈(Jazz), 아프리카(Africa), 카리브 리듬, 뉴 올리언즈 재즈(New Orleans Jazz)를 결합시켜 1950년대에 발전된 것이다.

⑦ 얼터너티브 음악(Alternative Music) : 1960년대 후반 그리고, 1970년대 내내 음악 산업에 의해 록음악이 흡수되자 이에 대응하여 나타났으며, 1960년대 후반 이래 덜 상업적이고 덜 주류적이며, 더 진정하고 ‘비타협적인’ 대중 음악에 사용된 이름이다. 역사적인 핵심은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판매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예술 혹은, 표현으로서 록음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얼터너티브 록의 ‘역할’ 혹은 의미는 ‘예술’ 이라는 고전적인 목표가 된다.

⑧ 컨트리 록(Country Rock) : 국제적으로 대중화된 미국의 음악장르로서, 과거에는 포크음악(Folk Song), 올드타임 음악, 힐빌리(Hillbilly), 그리고 컨

트리 앤 웨스턴(Country & Western music) 등 다양하게 알려졌으나, 1990년대 새롭게 성장하여 컨트리와 록을 혼합하여 사용된다.

⑨ 펑크 록 (Funk Rock) : 1970년대 미국의 밴드에서 영원을 찾을 수 있고, 펑크 음악의 여러 요소는 대중음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스타일상 펑크 음악은 귀에 거슬리는 시끄럽고 빠른 형태로써 라이브쇼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성을 쌓았다.

⑩ 하드 록(Hard Rock) : 정해진 형식이 없이 느슨한 장르로서 거칠게 몰아치는 리듬, 강력한 베이스 드럼, 음역이 제한된 짧은 선율, 남성적인 음량과 단호함 등이 특징적이며 다양한 뮤지션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초기 하드록은 R&B(Rhythm & Blues)에서 유래되었으며 헤비메탈(Heavy Metal) 형식과 중첩되면서 후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타악기의 힘을 선율과 결합하여 그 한계를 확장시켰다.

⑪ 헤비 메탈(Heavy Metal) : 음악적 범위는 록음악보다 더 크고, 강하고, 템포가 빠르며, 종종 대중음악의 무절제함을 포함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헤비메탈은 음악적인 설득력을 보여주며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⑫ 하드코어(Hardcore) : 1970년대 말 미국의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의 일부인 하드코어는 펑크(Funk)에서 발전한 것이나, 1990년대에는 최대한의 빠르기로 가속화하고 단조로운 베이스 드럼을 고수하며, 싱어가 만들어 내는 가장 선동적인 정서를 분출해 낸다. 비타협적이란 말로써 규정되기도 하는 하드코어는 언제나 그 중심에는 정치가 있었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대중음악에 관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선호도 조사와 이를 통해 수업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았다. 청소년들의 대중음악 선호도에 따른 선행연구와 수업 적용 방안은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중음악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넓히고, 대중음악을 통한 음악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뜻이 있으며, 그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수정¹¹⁾은 대중음악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지도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대중음악 선택의 기준과 지도 가능한 대중음악, 그리고 그 지도 내용을 제시해 봄으로써, 음악의 생활화를 통한 긍정적 삶의 형성이라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더욱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대중음악의 시작과 발달, 특징과 개념, 종류를 살펴보았으며 대중음악교육의 시작과 발달, 그리고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대중음악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곡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지도 가능한 대중음악과 그 지도내용을 음악적 기본 요소, 가창, 창작, 감상의 5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중음악이 가지는 교육적인 의미를 잘 살리면서도 더욱 다양한 대중음악이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음악수업은 과거의 작품이 아닌 대중음악을 포함한 현 시대의 작품도 균형 있게 다루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대중음악의 유용성을 발견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안에서 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음악경험을 풍성이 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방기석¹²⁾은 대중가요 자체가 음악수업의 핵심적 제재곡이 될 수는 없으나,

11) 허수정, “음악교재곡의 다양화를 위한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12) 방기석, “음악적 요소 지도를 위한 대중가요의 활용방안”, 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단지 대중가요의 음악적 요소를 음악교육의 한 소재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어 대중가요에 대한 문헌조사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좋아하는 음악 장르, 전문적인 음악가로서의 진로조사,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대중가요 등 장르별로 설문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반복적인 반주리듬, 선율, 노랫말의 내용과 특성, 화성의 특징, 구조적인 형식, 상품지향적인 문제점, 대중가요의 교육적 수용의 범위와 한계 등 조사된 대중가요를 기초로 하여 음악적 요소지도를 위한 대중가요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곡을 선곡하여 작품들의 경향 및 특징을 조사한 결과 음악적 요소 중에서 대중가요의 반주리듬은 규칙적인 박의 강세와 서로 엇갈리고 맞물리면서 대중가요의 독특한 강세를 가진 반주리듬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대중가요의 규칙적인 반주리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박의 흐름에 맞춰 몸을 움직이게 한다. 독보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박의 흐름을 바탕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리듬들이 기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 박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적 수용의 가능성 연구에서는 요소지도를 위한 곡을 선곡 할 때 유의점으로 노랫말이나, 선율의 진행, 화성, 음역, 구조적 형식 등의 주의 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상품성이 강한 대중가요를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조건과 욕구에 맞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주어 올바른 문화적 자생력을 갖도록 하여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고은혜¹³⁾는 대중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중음악이 청소년에

게 주는 영향만큼 청소년 음악교육에 미치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들을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평소에 즐겨듣는 음악은 대중가요가 56.30%이며 나머지는 영화음악, CF음악과 팝송 순서로 답하였다. 대중음악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95.92% ‘필요하다’ 라고 대답하고 불필요하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중가요를 좋아 이유는 무조건 좋다는 대답이 47.4%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사가 좋아서, 정서에 맞다는 대답 이었다. 대중음악의 문제점에서는 현란한 옷차림과 사치성, 가사내용, 이상화된 연예인이라고 하였다. 음악 수업 중 가장 배우고 싶은 대중음악의 장르는 대중가요가 55.5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음악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관심없다가 48.5%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44.44%였으며 현재 음악수업의 시수에 관한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가 27.03%, 적당하다가 38.51%, 지루하다가 34.36%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 교육이 음악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8%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학교음악과 대중음악이 50%필요하다가 33.33%, 불필요하다가 5.19%로 대답하였다. 대중음악을 음악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54.07%가 매우 찬성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음악 수업 중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창, 감상, 기악 순으로 답하였고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대답으로는 40.76%가 조금 도움이 되며 29.62% 매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29.6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음악교과서에 관한 생각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대답이 48.14% 대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음악은 이미 청소년에게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이를

13) 고은혜,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개선해야 할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며 사회나 학교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음악문화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기관에서는 대중음악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은미¹⁴⁾는 대중음악의 긍정적인 부분 및 부정적인 부분이 재조명되어 학교 음악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음악교육에서 활용하는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을 통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음악 수업시간에 대중음악을 부른다는 의견이 56.7%로 학교에서 대중음악교육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6.6%로 대중음악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이 많으며, 향후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는 장르로는 영화음악과, 대중가요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교 교육에서 고려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생활에 맞는 음악교육이 간절하게 요구 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연구 검토되어 학생들이 선호하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중음악을 선정하고 음악 수업에 적절히 도입하여 교사와 학생이 기대하는 학습모교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홍기경¹⁵⁾은 청소년의 대중음악에 대한 심취가 그들의 감성지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 성별, 학년별, 성적별, 그리고 생활수준으로 어느 정도 심취되어 있으며 감성지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청소년기의 대중음악 수용 실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통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14) 유은미,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 음악의 분석 및 실태조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5) 홍기경, “청소년의 대중음악 심취도와 감성지능과의 관계”, 경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감성지능 측정도구로는 문용린(1996)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로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이 ‘오빠부대’ 활동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대중가요 음반 매입 수량이 여학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적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상’ 인 집단과 ‘하’ 인 집단 모두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중음악이 생활에 활력소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스타 정보에 따른 길라잡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심취도에서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심취도가 높은 반응이 나타났으며 학년별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생활 수준에서는 ‘상’ 인 집단이 ‘하’ 인 집단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반면에 성적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과 심취도 수준에 따른 영역별 감성지능의 차이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중음악에 대한 심취가 학교성적에 방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적과 심취도 수준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감성지능 하위영역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대중음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대중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것이 감성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중음악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을 사회 전반을 거쳐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편협한 상업성을 지양하면서 건전한 대중음악이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대중음악을 모니터링 하여 토론과 의견을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해석하고 문화를 가꾸는 일일 도와 주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정회리¹⁶⁾는 대중음악을 교과서에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하기

16) 정회리, “음악수업에서 대중음악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실태조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위해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의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도, 대중음악의 선호도, 대중음악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학생들의 실태를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그 결과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이유는 71%가 ‘멜로디’ 나 ‘리듬’ 이 좋아서라고 나타났다. 또한 대중음악을 들으면 전체의 52%가 ‘기분전환이 되고 명랑해진다’ 고 답했으며 ‘대중음악은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60%가 ‘필요하다’ 라고 대답했고 34%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으며 6%가 ‘필요 없다’ 고 답해 대중음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 교육의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50.5%가 ‘필요하다’ 고 응답했고, 15%가 ‘필요 없다’ 고 대답했으며 34.5%가 ‘모르겠다’ 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대중음악을 오락적인 정도의 가치로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의 다양한 리듬과 실험정신, 아름다운 멜로디 등의 장점을 배제하고 대중음악의 상업성, 가사의 저질성, 사과의 단순성 등의 안 좋은 면만을 걱정한 채 고전 음악만을 강조하는 현실과 동 떨어진 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 연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점은 청소년들이 음악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음악수업을 지루해 하여 학교 음악수업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중음악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연구가 선호도와 대중음악 교육의 필요성에만 치중되어 아쉬웠으나 요즘 학교에서 대중음악 교육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수업에 활용할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1)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8종 음악교과서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음악교과서(2002년~ 현재 사용)는 다음과 같다.

<표2>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출판사	저자명
대한교과서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세광음악 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박영사	이강을, 주광식, 김금수, 황 선
현대출판사	윤경미, 문 진
도서출판사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주) 두산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주) 교학사	정영택, 허화병
(주) 천재교육	백병동, 최 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2) 교사 인터뷰

이메일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들인 현직 고등학교 음악교사 10

명이다. 지역은 경기도 3명, 충청북도 7명으로 성별은 남자 8명과 여자 2명, 교사 경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었다.

2. 연구 도구

①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을 지도내용, 연주형태, 곡의 종류, 년도, 나라별로 분석하였다.

<표3> 교과서 분석내용

분석주제	내용
지 도 내 용	대중음악의 지도 목표와 교과서, 지도서와 관련된 문헌의 수업 전개 방안
연 주 형 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곡 의 종 류	대중가요, 민요, 팝송, 재즈, 샹송, 칸초네, 뮤지컬, 영화음악, 가스펠송, 흑인영가, 캐롤, 경음악, CCM 등
년 도	1900년대 ~ 현재까지
나 라	여러 나라

② 교사들이 대중음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중음악 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하였다.

<표4> 인터뷰 질문내용

인터뷰 주제	내용
대중음악의 정의	현재 대중음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였다.
대중음악 교육의 유무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대중음악교육의 유무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교과서의 대중음악	대중음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와 앞으로의 개선점을 위해 교사들은 현행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과서에 실릴 대중음악의 선정기준과 추천할만한 곡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대중음악 교수 실태	대중음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위해 현재 대중음악교육의 유무와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일반클래식과 대중음악 수업방법의 차이점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과 참고곡을 포함한 대중음악 전부를 분석하였다. 그 범위는 형태와 종류, 지도 목표와 지도방안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으로 제한하고 대중음악의 종류, 연주형태, 나라, 작곡 년대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대중음악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대중음악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위하

여 현직 교사 10명을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중음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현행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중음악 곡<부록 2>에 대한 생각,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 대중음악과 예술음악을 가르칠 때의 차이점등으로 10문항을 질문하였으며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보내 요청을 받아준 교사 2명과 전화 약속을 하여 학교로 찾아갔다. 이메일로 요청을 받아준 교사 분들이 많지 않아서 8명은 아시는 분을 통하여 전화 약속을 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다. 교사들 모두가 수업이 끝나고 인터뷰하기를 원하여 교사들이 편하다는 시간에 약속을 하여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0분 동안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1:1로 이루어 졌으며 인터뷰 시 질문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인터뷰를 시작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실린 곡목<부록 2>을 보여주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필기하였고 내용 모두를 녹음하였다.

인터뷰기간은 2005년 3월 28일부터 2005년 4월 23일까지 이루어 졌다.

IV.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분석

1.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분석 및 분류

각 출판사에 수록된 대중음악은 다음과 같다.

대한교과서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2곡, 서양 대중음악 8곡으로 총10곡이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Swing low sweet chariot>가 1900년대 초반이고 <돌아오라 쏘렌토로>가 1920년대, <여름날>이 1930년대, <샹젤리제>, <꽃의 속삭임>이 1960년대,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Holiday>, <Love>, <Take me home country roads>가 1970년대, <어디로 갈꺼냐>가 198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대한교과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교과서 전체 중에서 대중음악 설명이 가장 많았다. 대중음악을 6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그 중 3부분이 미국의 대중음악이고, 나머지 3부분이 미국권 이외의 대중음악이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 샹송과 이탈리아 칸초네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는 영국과 독일의 대중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두 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을 소개하고 있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미국의 대중음악 변천사에 따른 대표적인 대중음악이 수록되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는 팝송, 흑인영가, 재즈 등이 소개되어졌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에서는 가요가 있었다.

각 곡에 대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어디로 갈꺼냐>는 삶의 애환을 주제로 한 곡으로 기타나 국악장단에 맞추어 서정적으로 노래 부를 수 있으며 서양식 가요와 한국적 가요의 차이점을 지도할 수 있다. <샹젤리제>, <꽃의 속삭임>은 멋과 낭만을 주제로 한 곡으로 가사내

용에 맞게 서정적으로 부를 수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중음악 정서를 느끼고 샹송과 칸초네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돌아와라 쏘렌토로>는 자연과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칸초네의 서정성을 느끼고 관계조와 조바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Holiday>, <Love>는 서정적인 대중음악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각 나라의 대중음악 특징과 대표적인 음악가들에 대해 알 수 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는 자연과 향수를 주제로 한 곡으로 미국 초기의 대중음악(흑인 영가, 블루스, 컨트리)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으며 미국 초기의 대중음악 일부를 감상하고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여름날>은 삶의 기쁨과 행복한 삶의 지향을 주제로 한 곡으로 재즈음악의 흐름과 발전과정을 익히고 대표곡을 감상할 수 있다.

<표5> 대한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대한교과서	제재곡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다장조	4/4	김민기	제창	p.140	가요	1970
		어디로 갈꺼나	마단조	3/4	김영동	제창	p.141	국악 가요	1983
		상젤리제	사장조	4/4	디건	부분 2부합창	p.24	샹송	1960
		꽃의 속삭임	가단조	4/4	도니다	제창	p.25	칸초네	1960
		돌아와라 쏘렌토로	다장조 , 다단조	3/4	쿠르 니스	제창	p.126	칸초네	1920
		Holiday	가단조	4/4	마이네	제창	p.44	팝송	1970
		Love	다장조	4/4	존 레논	제창	p.45	팝송	1970

		Take me home country roads	사장조	2/2	존 덴버	부분 2부합창	p.64	팝송	1970
		여름날	사단조	2/2	거슈윈	제창	p.105	재즈	1930
	참고곡	Swing low sweet chariot	가장조	4/4	킨	제창	p.66	흑인 영가	1900

세광음악 출판사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2곡, 서양 대중음악 10곡으로 총 12곡이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Swing low Sweet chariot>가 1900년대 초반이고 <돌아오라 쓰렌토로>가 1920년대, <Love Me Tender>, <로미오와 줄리엣>, <샹젤리제>는 1960년대, <겨울아이>, <그대 있는 곳까지>가 1970년대, <나이 서른에 우린>이 1980년대, <I Will Follow him>이 1990년대로 대체적으로 각 년대의 곡이 고르게 실려져 있다. 특정 유행음악이 아닌 다양한 음악을 수록한 세광음악출판사의 대중음악은 많은 곡이 제재곡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곡에 대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나이 서른에 우린>은 행복한 삶의 지향을 주제로 한 곡으로 가사의 의미를 살려 노래 부르고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으며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 볼 수 있다. <꽃의 계절>은 자연과 계절을 주제로 한 곡으로 당김음의 리듬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고 가단조의 단음계를 이해하고 빠르기의 변화를 살려 기창과 리코더로 표현할 수 있다. <Swing low Sweet chariot>은 삶의 애환을 주제로 한 곡으로 악곡의 특징을 살려 아카펠라로 부를 수 있으며 흑인 영가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대 있는 곳까지>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기악반주에 맞추어 독창과 혼성 4부 합창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마장

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참고곡인 <겨울아이>, <돌아오라 소렌토로,추억>, <여유 있게 걷게 친구>, <I Will Follow him>, <샹젤리제>, <Love Me Tender>는 지도내용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교과서에는 대중 음악사나 대중음악이론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6> 세광음악 출판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세광음악출판사	체재곡	나이 서른에 우린	사장조	4/4	백창우	제창	p.24	가요	1980
		꽃의 계절	다장조	2/2	라스킨	제창, 기악	p.10	팝송	
		Swing low Sweet chariot	가장조	4/4	킨	혼성 4부합창	p.114	흑인 영가	1900
		그대 있는 곳까지	마장조	4/4	칼데론	혼성 4부합창	p.132	상송	1970
	참고곡	겨울아이	가장조	4/4	박장순	부분 3부합창	p.172	가요	1970
		로미오와 줄리엣	다장조	3/4	로타	기악합주	p.32	영화 음악	1960
		돌아오라 소렌토로	다장조, 다단조	3/4	쿠르티스	제창	p.52	칸초네	1920
		추억	다장조	12/8	로이드 웨버	제창	p.128	뮤직컬	1980
		여유 있게 걷게 친구	다장조	4/4	돈베지그	3부합창	p.166	팝송	
		I Will Follow him	나장조	4/4	셰이먼	부분 3부합창	p.168	영화 음악	1990

	상펠리체	사장조	4/4	디건	부분 2부합창	p.171	상송	1960
	Love Me Tender	사장조	4/4	프레슬 리&맷 슨	제창	p.171	팝송	1960

박영사에는 서양 대중음악이 5곡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고엽>이 1940년대, <볼라레>가 1950년대, <곤돌리 곤돌라>가 1960년대, <Annie's Song>은 197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박영사는 적당한 양과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각 곡에 대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곤돌리 곤돌라>는 경쾌한 이탈리아 풍의 리듬과 선율을 익힐 수 있으며 칸초네를 이해할 수 있다. <고엽>은 프랑스 상송을 이해하고 프랑스 어에 의한 노래를 익히고 감상할 수 있다. <Annie's Song>은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으며 포크 음악을 이해하고 기타연주법을 익힐 수 있다. 참고곡인 <니나>와 <볼라레>는 지도내용이 수록 되지 않았다.

박영사에서서는 대중 음악사나, 대중음악 이론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7> 박영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박 영 사	곤돌리 곤돌라	나장조	6/8	카로 조네	제창	p.100	칸초네	1960
	볼라레	나장조	2/2	도메 니코 모두뇨	제창	p.104	칸초네	1950
	고엽	마단조	4/4	조제프 코스마	제창	p.106	상송	1940

		Annie's Song	다장조	3/4	존 덴버	제창	p.110	팝송	1970
	참고곡	나나	라단조	4/4	참피	제창	p.55	팝송	

현대 출판사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2곡, 서양 대중음악 2곡으로 총4곡이 수록되어져 있다.

대중음악 이론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돌아오라 쏘렌토로>가 1920년대, <가시버시 사랑>, <마법의 성>, <When I Dream>이 199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단 4곡의 대중음악을 수록한 현대음악출판사는 가정 기본적인 종류의 대중음악을 단 1곡씩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곡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악곡만 제시되어 있었다.

<표8> 현대 출판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현대 출판사	가시버시 사랑	내림마장조	6/8	이병욱	제창	p.169	국악 가요	1990
	마법의 성	다장조	4/4	김광진	제창	p.171	가요	1990
	돌아오라 소렌토로	다장조, 다단조	3/4	쿠르티스	제창	p.24	칸초네	1920
	When I Dream	라장조	4/4	메이슨	제창	p.170	팝송	1990

도서출판 태성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2곡, 서양 대중음악 9곡으로 총11곡

이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돌아오라 쏘렌토로>가 1920년대, <The Lion Sleep Tonight>, <나의 길>, <Yesterday>가 1960년대, <그대 있는 곳까지>가 1970년대, <J에게>가 1980년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My Heart Will Go On>가 199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The Lion Sleep Tonight>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라이온킹’의 극중에 삽입되었던 노래이며, 그 경쾌한 리듬으로 충분히 널리 알려진 곡이다. <나의 길>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져 발표된 노래였으나 1969년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더욱 유명해졌으며 <Yesterday>는 설명이 필요없는 그룹 비틀즈의 곡이다. 1970년대에 유행한 <그대 있는 곳까지>는 미국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곡이다. <My Heart Will Go On>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으로 1999년 개봉 당시에 전 세계적인 상업적 성공과 더불어 주목받았던 곡이다.

이렇게 대부분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곡이 많은 도서출판 태성의 대중음악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인류애를 주제로 한국어로 참고곡이지만 불우청소년을 위한 노래라는 부제가 있어서 그 노래의 취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지도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순수하고 헌신적인 가사에 의해 사랑에 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하며 여러 종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J에게>와 <나의길>도 참고곡으로 지도내용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J에게>는 이탈리아 대중가요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나라에 따라 음악적 정서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Young And Free>는 음악의요소와 형식을 알고 주제, 가사, 가락, 반주를 만들 수 있으며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노고를 알 수 있게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The Lion Sleep Tonight>은 기악곡으로 곡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악곡의 흐름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합주하고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My Heart Will Go On>은 영화에 있어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대 있는 곳까지>와 <돌아오라 쏘렌토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악곡을 비교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Memory>는 뮤지컬을 감상하고 구성요소와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뮤지컬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Yesterday>는 대중음악가 비틀즈에 이해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도서출판태성은 많은 수록 곡에 비해 대중 음악사나 대중음악 이론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9> 도서출판 태성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도서출판태성	Young And Free	다장조	4/4	D.베르크 외	창작	p.68	팝송	
	The Lion Sleep Tonight	사장조	4/4	L.크리토 외	기악합주	p.38	영화음악	1960
	그대 있는 곳까지	마장조	4/4	칼데론	부분4부 합창	p.84	상송	1970
	돌아오라 쏘렌토로	다단조 , 다장조	3/4	쿠르티스	제창	p.88	칸초네	1920
	Memory	다장조	12/8	로이드 웨버	제창, 감상	p.143	뮤지컬	1980
	Yesterday	다장조	4/4	폴메카트니	제창	p.148	팝송	1960

참 고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참고곡)	사장조	4/4	허광훈	제창	p.44	가요	1990
	J에게(참고곡)	올림마 장조	4/4	이세건	제창	p.91	가요	1980
	나의 길(참고곡)	다장조	4/4	프랑 소와	제창	p.37	영화 음악	1969
	My Heart Will Go On(참고곡)	바장조 , 라단조 /올림 바 단조	4/4	호너	제창, 감상	p.14 3	영화 음악	1990
	세상 높은 곳에서 (참고곡)	바장조	2/2	벤티스	제창	p.87	팝송	1973

두산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1곡, 서양 대중음악 9곡으로 총 10곡이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돌아오라 쏘렌토로>가 1920년대, <여름날>이 1930년대, <Bye Bye Love>, <사랑의 찬가>, <Tonight>이 1950년대, <우리는>, <Yesterday>가 1980년대, <I Will Follow him>이 1990년대에 유행하였다. 이 곡들은 대중음악의 각 종류에 해당하는 곡으로 각 1곡씩 설명과 함께 종류가 소개되어지고 있었다. 특히 가요는 간략하지만 교과서중에 유일하게 설명이 있었다.

각 곡에 대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름날>, <사랑의 찬가>는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가사의 내용과 가락의 관계를 느끼며 부를 수 있으며 리듬과 가락 진행의 특징을 살려 표현 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라 노비아>는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음악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Bye Bye Love>는 시와 노래의 의의를 느끼며 노래 부를 수 있으며 대중가요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생각 할 수 있다고 제시 되었다. <Tonight>, < I Will Follow him>은 뮤지컬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며 뮤지컬의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노래 불러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다도 제시하였다. 두산은 대중음악 이론이 서양음악의 이해 부분에서 랩소디 인 블루로 따로 수록되어 있고 음악과 생활이라는 단원으로 제재곡과 이론을 수록하였다.

<표10> 두산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주) 두산	제재곡	우리는	사장조	4/4	송창식	제창	p.148	가요	1950
		라 노비아	내림나장조	4/4	호아킨 프리에 토	제창	p.153	칸초네	
		여름날	사단조	2/2	거슈윈	제창	p.149	재즈	1930
		Bye Bye Love	바장조	2/2	브라이 언트	제창	p.150	팝송	1950
		Yesterday	다장조	4/4	폴메카 트니	제창	p.151	팝송	1960
		사랑의 찬가	사장조	4/4	모노	제창	p.152	상송	1950
		Tonight	내림나장조	2/2	레너드 번스타인	3부합창	p.156	뮤지컬	1950
		Sunrise Sunset	가단조	3/4	헤르믹	기악곡	p.98	영화 음악	1970
		I Will Follow him	나장조	4/4	셰이먼	부분3부합창	p.157	영화 음악	1990

	참고 곡	돌아오라 소렌토로	다단조, 다장조	3/4	쿠르티 스	제창	p.71	칸초네	1920
--	---------	--------------	-------------	-----	----------	----	------	-----	------

교학사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1곡, 서양 대중음악 15곡으로 총 16곡이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물망초>가 1920년대, <Love is Blue>, <Moon River>, <I understand>가 1960년대, <Beautiful Sunday>, <Yesterday One More>, <그대 있는 곳까지>, <Chante>,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ng>, <Let It Be>가 1970년대, <향수>, <Memory>가 1980년대, <Beauty And The Beast>가 199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교학사는 16곡의 가장 많은 대중음악을 수록하고 있고 유행 년대를 살펴보면 1970년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다양한곡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각 곡에 대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Love is Blue>는 기악곡으로 리코더 같은 가락 악기나 피아노와의 어울림을 발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Memory>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뮤지컬 ‘캣츠’의 음악 구성을 이해, 감상하고 뮤지컬의 명곡을 찾아 감상하고 발표할 수 있다. <Yesterday One More>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코드네임을 이해하고, 화음 반주를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는 자연을 주제로 한 곡으로 다단조와 다장조의 음계를 이해하고, 조바꿈된 가락과 제재곡의 형식, 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물망초>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이탈리아 칸초네의 특징과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여 부를 수 있다. <그대 있는 곳까지>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독창, 중창, 합창의 어울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제재곡의 당김음 리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Chante>는 행복한 삶의 지향을 주제로 한 곡으로 같은 으뜸음조(라장조, 라단조) 3부합창의 화음감을 살려서 표현하고 다양한 프랑스 샹송의 특징을 알 수 있다. <Beauty And The Beast>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제재곡 감상을 통하여 만화영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Sing>은 자연을 주제로 한곡으로 계적의 감각을 살린 다양한 음악회 감상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다양한 리듬 표현을 살려서 경쾌하게 2부 합창을 할 수 있다. <Let It Be>는 신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곡으로 가락 악기로 기악 앙상블로 연주할 수 있고 비틀즈의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 수 있다. <I understand>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대위법을 이해하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를 수 있다. 나머지 참고곡들은 지도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교학사의 대중음악 이론은 감상단원에서 뮤지컬 ‘캣츠’로 이해단원에서 칸초네, 가창단원에서 프랑스 샹송과 흑인영가로 참고단원에서 영화 음악, 뮤지컬, 창극음악으로 따로 수록되어 있다.

<표11> 교학사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주) 교학사	제재곡	Love is Blue	바장조	4/4	안드레 포드	기악합주	p.50	팝송	1968
		돌아오라 소렌토로	다단조, 다장조	3/4	쿠르티스	제창, 기악	p.70	칸초네	1920
		물망초	내림마장조	3/4	E.D. 쿠르티스	부분2부 합창	p.52	뮤지컬	1980
		Chante	라장조	4/4	베코	혼성3부 합창	p.112	팝송	1970

		Beauty And The Beast	사장조, 가장조	4/4	알란 멘켄	2부합창	p.92	영화 음악	1991
		Swing low Sweet chariot	가장조	4/4	킨	제창, 기악	p.132	흑인 영가	
		Sing	사단조	4/4	라포스	2부합창	p.150	팝송	1970
		Let It Be	바장조	4/4	폴메카 트니	제창, 기악	p.156	팝송	1970
		I understand	사장조	4/4	클레 프스	부분3부 합창	p.164	팝송	1960
참 고 곡		향수	바장조	4/4	김희갑	제창	p.160	가요	1989
		Memory	다장조	12/8	로이드 웨버	부분 2부합창	p.52	뮤지컬	1991
		Beautiful Sunday	다장조	4/4	Mc Queen	혼성3부 합창	p.57	팝송	1972
		Yesterd Once More	내림나 장조	4/4	카펜 더즈	부분2부 합창	p.58	팝송	1973
		라 노비아	내림나 장조	4/4	호아킨 프리에 토	제창	p.163	칸초네	1960
		그대 있는 곳까지	마장조	4/4	칼데론	부분4부 합창	p.60	샹송	1970
		Moon River	내림나 장조	3/4	맨시니	2부합창, 기악합주	p.117	영화 음악	1961
		Bridge Over Troubled Water	다장조	4/4	폴사 이먼	동성2부 합창	p.102	팝송	1970

천재교육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1곡, 서양 대중음악 4곡으로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유행 년대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How Deep is Your Love>가 1970년대, <마리아 마리>가 1980년대, <가시버시사랑>, <I Will Follow him>이 1990년대의 대중음악이다. <I Will Follow him>을 제외한 모든 곡의 주제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이다.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가시버시사랑>은 창작 국악곡인 제재곡을 통해서 전통음악이 사양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가락에 맞게 굿거리장단의 변화형을 만들 수 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은 뮤지컬을 감상하고 뮤지컬에 대해 지도 할 수 있다. <마리아 마리>는 여러 가지 6/8박자의 리듬과 반음계적인 음정에 유의하여 노래 할 수 있고 조바꿈과 다양한 나타냄 말에 유의하여 사랑 노래를 표현 할 수 있다. <I Will Follow him>은 신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빠르기와 조바꿈에 유의하여 노래하고 영화 음악에 대하여 지도 할 수 있다. <How Deep is Your Love>는 다양한 리듬 변화에 유의하여 대중음악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다.

8종교과서 중에서 유일하게 괄송이 없는 천재교육은 가요를 제외한 변천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대중음악 이론이 음악알기단원에 대중음악으로 따로 수록되어있다.

<표12> 천재교육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조성	박자	작곡자	연주형태	쪽수	종류	작곡년대
(주) 천 재 교 육	가시버시사랑	내림마 장조	6/8	이병욱	제창	p.162	국악 가요	1990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라장조	4/4	웨버	2부합창	p.134	뮤지컬	1970

곡	마리아 마리	가단조, 가장조	6/8	카푸아	제창	p.126	칸초네	1899
	I Will Follow him	나장조	4/4	셰이먼	부분3부 합창	p.144	영화 음악	1990
	How Deep is Your Love	내림마 장조	4/4	브라 더스	제창	p.164	영화 음악	1977

8종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살펴보았는데 교학사가 16곡으로 가장 많은 대중음악을 수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세광음악 출판사가 12곡, 태성이 11곡, 두산과 대한교과서가 10곡, 박영사와 천재교육이 5곡, 현대 출판사가 4곡으로 가장 적었다.

<표13> 출판사별 대중음악 곡수

출판사	대중음악 곡수
(주) 교학사	16
세광음악 출판사	12
도서출판사 태성	11
대한교과서	10
(주) 두산	10
박영사	5
(주) 천재교육	5
현대 출판사	4

박영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포함한 대중음악을 수록하고 있었고 전체 곡 중 몇 곡은 교과서 마다 중복 수록되어 있었다. 칸초네인 ‘돌아오라 소렌토로’는 천재교육을 제외한 7개의 교과서에 중복 수록되었으며 흑인영가 ‘Swing low Sweet chariot’는 대한교과서와 세광음악 출판사, 교학사에 수록되었고 뮤지컬곡인 ‘Memory’는 세광음악 출판사와 태성, 교학사에 영화음악인 ‘I Will Follow him’은 세광음악 출판사와 두산, 천재교육에 수록되었다. 재즈인 ‘여름날’은 대한교과서와 두산에 수록되었고 샹송인 ‘샹젤리제’는 대한교과서와 세광음악 출판사, 샹송인 ‘그대 있는 곳까지’는 세광음악 출판사와 태성, 팝송인 ‘Yesterday’는 두산과 태성, 칸초네인 ‘라 노비아’는 두산과 교학사, 국악가요인 ‘가시버시 사랑’은 현대 출판사와 천재교육에 중복 수록되었다.

<표14>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대중음악

	대한 교과서	세광음악 출판사	박영사	현대 출판사	도서출판 사 태성	(주) 두산	(주) 교학사	(주) 천재교육
돌아오라 소렌토로	●	●	●	●	●	●	●	
샹젤리제	●	●						
여름날	●					●		
Swing low Sweet chariot	●	●					●	
그대 있는 곳까지		●			●			
Yesterday					●	●		
라 노비아						●	●	
Memory		●			●		●	

I Will Follow him		●				●		●
가시버시				●				●

교과서에 실린 곡의 종류를 보면 가요, 국악가요, 샹송, 칸초네, 팝송, 영화 음악, 뮤지컬, 재즈, 흑인영가 등이 있었다. 지도 내용을 보면 현대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수업목표와 함께 간단한 수업 지도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고 대한교과서와 두산, 교학사, 천재교육은 대중음악 이론과 대중 음악사를 수록하고 있었다.

2.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8종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비율을 곡의 종류와 연주형태, 작곡 년대, 나라별로 알아보았다. (각 표에 나타난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다.)

1) 종류

대중음악 곡의 장르 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72곡에서 팝송의 곡수가 19곡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칸초네가 13곡, 영화음악이 11곡, 가요와 샹송이 8곡, 흑인영가와 국악가요가 3곡, 재즈가 2곡 수록되어 있었다.

<표15> 대중음악 곡의 종류

	곡수	백분율(%)
우리나라 가요	8	11.11%
국악가요	3	4.17%
상송	8	11.11%
칸초네	13	18.06%
팝송	19	26.39%
영화음악	11	15.28%
뮤지컬음악	5	6.94%
흑인영가	3	4.17%
재즈	2	2.78%
계	72	100%

2) 연주형태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형태로는 제창이 45곡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부합창과 부분2부합창, 부분3부합창이 5곡, 기악이 4곡, 3부 합창과 부분4부합창, 혼성3부합창, 혼성4부합창이 2곡 수록되어있었다.

<표16> 대중음악 곡의 연주형태

	곡수	백분율(%)
제창	45	62.05%
2부 합창	5	6.94%
3부 합창	2	2.78%
부분 2부합창	5	6.94%
부분 3부합창	5	6.94%
부분 4부합창	2	2.78%
혼성3부합창	2	2.78%
혼성4부합창	2	2.78%
기악합주	4	5.56%
계	72	100%

3) 작곡 년대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작곡 년대는 1970년대 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960년대 곡이 13곡으로 많았으며 1990년대 곡이 11곡, 1920년대와 1980년대 곡이 7곡, 1950년대 곡이 5곡, 1900대 초반곡과 1930년대가 2곡, 1940년대가 1곡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를 하다 보니 년도를 알 수 없는 곡들도 몇 곡 있었다.

<표17> 대중음악의 작곡 년대

	곡수	백분율 (%)
1900년대 초반	2	2.78%
1920	7	9.72%
1930	2	2.78%
1940	1	1.39%
1950	5	6.94%
1960	13	18.06%
1970	19	26.39%
1980	7	9.72%
1990	11	15.28%
미상	5	6.94%
계	72	100%

4) 국가

대중음악 곡들의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이 38곡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가 13곡, 한국이 11곡, 프랑스가 5곡, 스페인이 3곡,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가 1곡씩 수록되어져 있었다.

<표18> 대중음악 곡의 국가

	곡수	백분율(%)
한국	11	15.28%
미국	38	52.78%
프랑스	5	6.94%
이탈리아	13	18.06%
독일	1	1.39%
영국	1	1.39%
스페인	3	4.17%
스코틀랜드	1	1.39%
계	72	100%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의 종류와 연주형태, 작곡 년대, 나라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러 장르의 곡 중 팝송이 26.3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칸초네, 영화음악, 가요와 샹송, 흑인영가와 국악가요, 재즈 순으로 수록되어 있어 곡의 대부분이 팝송 위주의 외국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 곡의 연주형태를 살펴보면 제창이 62.05%, 2부합창과 부분2부합창, 부분3부합창이 6.94%,기악합주가 5.56%, 3부합창과 부분4부합창, 혼성3부합창, 혼성4부합창 순으로 제창과 기악영역을 함께 다루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창영역 위주의 곡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의 작곡 년대를 살펴보면 1970년대가 26.39%로 가장 많았고 1960년대가 18.06%, 1990년대가 15.28%, 1920년과 1980년, 1950년, 1900년대 초반곡과 1930년대, 1940

년의 순으로 수록되어져 1990년 이후의 최근 곡도 있지만 1960~70년대의 오래된 곡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라별로 대중음악 곡들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의 다양한 나라의 대중음악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비중은 미국이 5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8.06%, 한국이 15.28%, 그 다음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순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살펴보았는데 예전 교과에 비해 대중음악의 비중이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의 비중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곡이 외국곡이어서 우리나라 곡의 비중이 적었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과 대중음악사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적었다. 지도 방법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도법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외국곡에 비해 우리나라 곡은 악곡만 제시되어 있거나 수업내용이 자세히 전개 되지 않았다.

V. 대중음악에 관한 교사들의 인터뷰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 실태 및 문제점과 대중음악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하였다.

질문1. 대중음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란 클래식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곡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A : 클래식을 제외한 대중적으로 서민들이 즐겨듣는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아이들이 잘 아는 대중적이고 간단하게 즐겨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C : 대중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스트레스 해소로 즐겨 부를 수 있는 단순하고 오락성이 있는 깊이 없는 생활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대중들이 많이 즐겨 듣고 부르고 따라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F : 대중음악은 크게 모든 사람들의 삶과 결부된 생활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대중음악이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생활음악이 대중음악이지만 요즘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상업적인 성격이 있고 생명력이 짧은 인

기를 추구하는 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교사 I : 일부 예술음악을 제외한 모든 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단순하고 감상적인 시대적 정서를 나타낸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대중음악 교육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가르쳐야 된다’ 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는 의견 또한 많아서 양방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A : 예,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예, 비중은 좀 적지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F : 대중음악범위를 크게 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예,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예,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C : 학교에서 까지 대중음악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학교에서 대중음악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아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가르쳐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해야하는 이유는 대중음악이 현재 학생들이 즐겨 듣는 음악이며, 사회에서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

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중음악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서 예술 가곡만을 수업한다면 지루해 하여 수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교사 A : 수업을 하다보면 한국가곡이나 외국가곡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대중음악(팝송)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에 잘 집중하기 때문에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교과서에 실린 예술가곡이나 대중음악 곡들을 보면 외국곡이 많은데 아이들이 즐겨듣는 것은 우리나라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정서에 맞는 한국대중음악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우리도 대중이고 연령별로 대중음악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학생들에게 맞는 음악을 다루어야 청소년과 시대 흐름의 감각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선별해서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일상생활 때 사용하고 즐기는 음악이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음악이 대부분 대중음악이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악을 알고 시대성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F : 대중음악은 인간의 삶과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폭 넓은 의미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대중음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대중음악의 장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재량이 부족하다. 고등학생의 음악 수업시수가 적고 학교에서의 마지막 음악 수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까지 대중음악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교사 C : 고등학교 음악시간은 학교에서는 배우는 마지막 음악수업시간인데 사회에서 쉽게 접하지 못 할 곡들을 가르쳐야하지 대중음악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의 장르가 너무 많고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다 알고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시수는 각 학생당 주당 1시간인데 대중음악까지 가르치기에는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고 대중음악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노래방등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대중음악은 옛 민요가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처럼 대중매체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학교에서 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첫째로 대중음악의 장르가 너무 많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유행을 맞추기가 힘들고 대중매체와 노래방의 발달로 학생 스스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가르치지 않아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현행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두가 대표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교사 A :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 B :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 C : 전혀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F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대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하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대중음악으로 배우기에는 아이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은 대중음악이라기 보단 이제는 예술음악으로 생각되어지고 칸초네와 샹송은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다. 교과서의 체재곡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라 교과서를 쓴 몇몇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라는 의견이었다.

교사 A :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대중적이어야 하는데 교과서에 실린 곡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팝송을 제외한 샹송이나 칸초네 등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잘 모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중음악 곡들은 우선 아이들이 알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아야 하는데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대중음악이라면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곡이 대부분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들을 보면 1920년대 곡들도 있는데 이런 오래된 곡들은 대중음악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C : 대중음악이라면 아이들이 잘 알고 즐겨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보면 대부분이 오래 되어서 대중음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곡들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을 보면 칸초네나 샹송 같은 외국곡이 많은데 성악전공이 아닌 이상 이탈리아어나 독일어는 능숙하지도 않고 간혹 가다 못 읽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운데 학생들은 더더욱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칸초네는 대중음악이라고 하기보단 외국 민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요즘 대중음악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깊이가 없는 음악인데 비해 칸초네나 샹송은 깊이가 있는 곡으로 대중음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사 E : 그 당시에는 대중음악 이었던 곡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지나서 세미클래식이 되어버린 곡들입니다. 거의 80년 이상 지난 곡들도 있는데 이런 곡들은 대중음악의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곡들이 실린 것을 나쁘게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사 F : 오래된 외국 대중음악 곡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예술음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많고 학생들이 배우는 대중음악으로서는 너무 오래되어 아이들이 모르는 곡이 많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은 교과서를 만든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지 이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사 G : 대표라는 개념의 말이 어려운데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은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 곡들이지 그것이 모두의 생각을 대표하는 곡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곡들을 봐도 시대가 너무 오래된 곡들도 많고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곡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사 H : 칸초네나 샹송 등 시대가 오래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곡들은 대중음악이라기 보단 이제는 예술음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곡들을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너무 오래된 곡이 많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곡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아이들이 배우기에 너무 오래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곡들은 교과서를 만든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지 이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6.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으로는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가사가 좋은 곡들 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오래되지 않은 유명한 곡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음역이 적당한 쉬운 곡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곡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A : 우선 아이들이 많이 아는 유명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좋고 멜로디나 선율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너무 오래되지 않은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사이기 때문에 가사가

견전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역이 아이들에게 맞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C : 가사가 학생들의 정서에 맞고 견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역도 학생들에게 알맞아서 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배울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를 수 있는 수명이 긴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성이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가사의 내용들이 좋고 가사의 내용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 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성이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가사 노랫말이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정적이거나 말초감각을 지향하는 것은 배제하고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지 않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F : 우선은 오래되지 않고 가사가 좋고 아이들의 정서와 감성에 맞는 아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유명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우리 정서에 맞고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가 있는 곡이어야 하고 음역이 아이들에게 맞아서 가성을 쓰지 않는 흥성으로써 부를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멜로디가 곱고 가사가 좋으면서 수명이 긴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가사가 폭력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유명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아이들이 많이 아는 유명하고 너무 오래되지 않은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나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 교과서에 사용될만한 대중음악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교과서에 사용될만한 대중음악 곡의 추천으로는 70~80년대의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던 건전가요가 가장 많았고 국악가요나 영화음악 등도 있었다.

교사 A : 지금 제목이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예전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던 잔잔한 노래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70~80년대의 건전가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C : '아침이슬'이나 '술아술아 푸른술아'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D : '아침이슬'이나 '기도'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E :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F : 마야의 '진달래꽃'이나 강산에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G : 조용필의 '친구여'나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간 사람', 양희은의 '아침이슬', 유심초의 '사랑이여'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H : 이병욱의 '오 금강산'같은 국악가요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I :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빠른 템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신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사 J :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영화음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8.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추천한 곡의 이유로는 노래가 어렵지 않고 오랫동안 즐겨 부를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기계음으로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음악

을 들려줄 수 있다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밖에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우리나라의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 A : 피아노 반주가 아닌 기타반주가 아이들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가고 흥미를 느끼게 해줄 것 같아서입니다.

교사 B : 기타로 코드진행을 넣어주거나 같이 기타 연주를 하면서 부를 수 있고 교과서에 기타연주법이 나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계화된 곡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차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C : 유행을 안타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부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서가 느껴지는 서정적인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D : 노래의 가사가 의지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하였고 멜로디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E : 노래가 어렵지 않아서 제창하기에 수월하고 노랫말도 아름답고 도입 단계나 발성부분으로 편안하게 재미있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F : 우선 마야의 '진달래꽃'은 우리나라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각발라드 창법으로 아이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에 맞춘 노래로 아이들이 부르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강산의 곡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철학적인 이미지를 주는 곡으로 가사가 깊이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부른 곡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G :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화려하고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H : 우리나라의 국악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든 곡이고 기계음을 많이 듣는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은 곡을 들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I : 느리지 않고 즐겁게 부를 수 있으며 빠른 곡은 아이들의 정서에 흥겹고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J :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고 멜로디가 감성적이고 영상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9.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얼마나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을 수업 중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마다 잠시 가창을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한달에 1번 정도,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 F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1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이 수업에 지루해 할 때 수업 중에 같이 노래합니다.

교사 G : 1학년 때는 가르치지 않고 2학년 때는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H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매번 수업 시간에 잠깐 불러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교사 I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일주일에 1번 수업시간마다 10분씩 불러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교사 J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매 수업 시간의 1/4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B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일주일에 1시간씩 가르칩니다. 교과서에 있는 1960년 그 이전의 음악들은 아이들이 몰라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의 대중음악 곡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A :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한 다 가르칩니다. 가곡2곡에 대중음악 한곡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D :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달에 1번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E : 시수가 적기 때문에 3달에2번 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C : 1년에 한번정도나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10. 교사들이 대중음악을 가르칠 때 일반 클래식과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가르칠 때 차이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예술가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이론과 가창을 하지만 대중음악은 이론 설명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곡을 선정하여 발표를 하거나 리듬을 변형하여 반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로 반주하여 노래하거나 그밖에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마이크 사용법을 배우고 대중음악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수업을 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반주를 만들어오고 음악을 듣는 수업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 A : 일반 예술가곡은 가르칠 때 일정한 짜여진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보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중음악은 이론적인 것 보다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부르고 들을 수 있게 자율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 가곡은 틀 있게 가르치는 반면 대중음악은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발성법으로 가곡과는 구분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이 오락성 있는 생활음악인 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해 낼 수 있게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H : 예술음악은 전문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가르쳐야 하고 대중음악

은 자연스럽게 즐긴다고 생각하면서 참고 하는 정도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C : 클래식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여 틀 있게 가르치는데 대중음악은 쉽고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개성 있게 발성하여 노래하거나 리듬 등을 변형시켜 연주하고 반주 리듬도 장르에 맞게 구분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 예술가곡은 피아노 반주로 많이 하는데 대중음악은 기타반주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가르치고 때로는 컴퓨터를 통해 악보를 그리게 하거나 CD에 반주를 넣어와 그것을 들으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곡을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음악을 만들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를 다르게 하여 노래를 만들어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 리듬을 주고 멜로디를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것을 모아 뮤지컬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사 E : 예술가곡은 악곡을 분석한다던지 작곡자를 공부하는 전형적인 틀에 맞춰서 수업하는 반면 대중음악은 감성적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시선을 모으는 흥미 있고 동기 유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가끔은 아이들과 노래방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교사 G : 예술음악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이론수업을 하고 가창을 하지만 대중음악은 노래방기기를 도입해서 마이크 사용법을 다루거나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성을 다르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모둠으로 듀엣을 시키기면서 자유롭게 부담 없게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I : 클래식은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무겁게 가르치는데 대중음악은 수업에 노래방 기기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경험해 보게 하고 유명한 장르는 설명해주기도 하면서 현 추세에 맞게 약간의 몸동작을 넣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다운받거나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J : 예술음악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이론수업을 하고 가창을 하지만 대중음악은 자유롭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곡해서 대중음악을 조사하거나 음악가를 조사하게 해서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음악 수업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DVD로 감상하여 영화에 사용된 음악을 공부하고 감상하게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게 하거나 공부하게 하는 방법 등을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 F : 예술음악은 당위성이나 가치를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추구하는 바를 알고 탐구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대부분이 대중음악이란 클래식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곡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대중음악의 교육 유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음악이고 예술가곡 만을 수업한다면 학생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는 의견이 더 많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는 의견도 있었다.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너무 오래 되어서 대중음악이라기 보단 예술음악에 가깝고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악과는 거리감이 있어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가사가 좋은 곡으로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오래되지 않은 유명한 곡이어야 하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곡이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천 곡으로는 70~80년대 건전가요가 많았으며 추천 곡들은 노래가 어렵지 않고 오랫동안 즐겨 부를 수 있고 기계음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중음악 곡들을 수업시간 마다 잠시 가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을 가르칠 때 차이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예술 가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이론과 가창을 하지만 대중음악은 단지 흥미를 돋구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한다는 모호한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의 정의와 대중음악교육의 유무, 교과서의 대중음악, 대중음악 교수 실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의 정의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을 알 수 있었고 대중음악교육의 유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아 학교에서 대중음악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의 대중음악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이 너무 오래되어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곡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추천 곡으로는 70~80년대의 건전가요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는 학생중심이 아닌 교사중심 사고의 결과로 보였다. 대중음악 교수 실태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대중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법 없이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수업시간 마다 잠시 가창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의 연구는 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실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을 분석하고 대중음악의 교육실태와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직 교사를 인터뷰 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을 분석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요·팝송·상송·칸초네·영화음악·뮤지컬음악·흑인영가·재즈 등의 여러 장르의 대중음악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비중은 팝송이 26.3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칸초네, 영화음악, 가요와 상송, 흑인영가와 국악가요, 재즈 순으로 수록되어 있어 곡의 대부분이 팝송 위주의 외국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외국 곡보다는 곡을 따라 부르거나 가사전달을 하기 쉬운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나 국악가요 등을 더 수록했으면 좋겠다.

둘째, 대중음악 곡의 연주형태를 살펴보면 제창이 62.05%, 2부합창과 부분2부합창, 부분3부합창이 6.94%,기악합주가 5.56%, 3부합창과 부분4부합창, 혼성3부합창, 혼성4부합창 순으로 제창과 기악영역을 함께 다루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중음악 곡의 연주형태가 가창영역 위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연주형태의 대중음악 수록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중음악의 작곡 년대를 살펴보면 1970년대가 26.39%로 가장 많았고 1960년대가 18.06%, 1990년대가 15.28%, 1920년과 1980년, 1950년, 1900년대 초반곡과 1930년대, 1940년의 순으로 수록되어져 1990년 이후의 최근 곡도 있지만 1960~70년대의 오래된 곡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의 정

서에 맞고 잘 알 수 있는 곡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대중음악 곡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의 여러 나라의 대중음악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비중은 미국이 5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8.06%, 한국이 15.28%, 그 다음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순으로 수록되어 있어 대중음악의 편중이 미국중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을 나라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 곡의 곡수가 많지 않다고 나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곡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하는 교육목표가 제시된 만큼 더 많은 나라의 대중음악 곡을 수록해야겠다.

다섯째,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이론을 보면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대중음악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과 대중음악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우리나라 대중음악이론에 대해 소홀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과 대중음악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하겠다.

여섯째, 대중음악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음악, 뮤지컬, 샹송과 칸초네, 흑인 영가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가요는 제재곡임에도 불구하고 각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악곡만 제시되어 있거나 수업내용이 자세히 전개 되지 않아 수업 적 활용에 어려워 자세한 지도내용이 필요하겠다.

대중음악의 교육실태와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현직 교사를 인터뷰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란 클래식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곡이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대중음악의 범주와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였다. 대중음악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둘째, 교사들은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은 너무 오래 되어서 대중음악이

라기 보단 예술음악에 가깝고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악과는 거리감이 있어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셋째, 교사들은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은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가사가 좋고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오래되지 않은 유명한 곡이어야 하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음악 교육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천 곡으로는 70~80년대 건전가요가 많았으며 그 곡을 추천한 이유는 노래가 어렵지 않고 오랫동안 즐겨 부를 수 있고 기계음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교사들은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에서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오래되지 않은 곡이 여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교사들이 추천한곡은 70~80년대의 예전 곡을 추천하여 아이들 중심인 아닌 그들 중심의 곡을 추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대중음악 교육 유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음악이고 예술가곡 만을 수업한다면 학생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는 의견도 많았다.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가볍게 생각하여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수업시간 마다 잠시 가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을 가르칠 때 차이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예술 가곡은 일정한 틀 안에서 이론과 가창을 하지만 대중음악은 단지 흥미를 돋구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한다는 모호한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대중음악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과 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대중음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청소년 문화로 간주되는 현대의 한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대중음악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유행적 음악이 아니라 대중음악 자체로서 음악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클래식 음악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중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게 오락적으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지도내용이 필요하고 교재곡 또한 어른들의 사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반영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한 대중음악 중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비중을 늘려야겠다. 교육계와 사회에서는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연구하고 대중음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들을 재교육시켜 학생들과 음악수업을 보다 알차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교과서에는 어떤 대중음악 곡들이 실려야 하는지와 더 많은 인원수의 교사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교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대중음악이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Popular Music Education in High School

Ko, Eun Ha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opular music has become the most common musical culture that everyone enjoys as it has naturally soaked into the lives of everybod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ss media. Based on the comprehensive musical education in Korea, the importance of popular music education aimed at the younger generation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therefore the frequency of carrying popular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and study how the popular music that had been introduced in the school education was being used educationally and wha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teaching method.

In order to study the status of the popular music that is being used in the mu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popular music that were carried in 8 different music

textbooks that were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Type of music, type of musical performance, content of things being taught, year of the songs and country of origin were analyzed and an interview of the teachers currently teaching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conducted on what was carried in the textbooks is as follows. First of all, as most of the popular songs that were carried in the textbooks were foreign songs, it could be seen that there was a need to carry more Korean popular songs. Secondly, as most of the popular songs were old songs that were written in the 1960–1970's, it needs to recompile the textbooks with songs that meet the emotion and interest of the students. Thirdly, as most of the popular music is centered around American songs, it should be collected that songs from various cultural areas as well as more Korean songs.

The conclusion reached after conducting interviews with teachers that are currently teaching, in order to find out the status of the edu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teachers had was popular songs that the general public like to sing in their daily life, excluding the classical music. This means that the range and definition of popular music was too widespread and therefore there was a need for research on the clear definition and range of popular music. Secondly, the textbooks should be recompiled to meet the interest and emo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 popular songs

that were carried in the textbooks were too old songs. Thirdly, as for the standard for selecting popular songs to be carried in textbooks, teachers thoughts were that it should be songs that have good words that meet the emo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most be a famous song that is new so that the students are familiar with the songs, it should be songs that can be easily song, and should be songs where musical education can be transmitted. This i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 teachers were making the selections based on their own thinking and not focused on how the students thinking was. Fourthly, as to the question on whether it was necessary to teach the popular songs at schools or not, more teachers responded that 'we should teach these songs' in order to induce interest in the class and as these songs were songs that students enjoy in their daily life. There were some opinions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teach these songs as students can naturally learn these songs through the mass media.

As the popular music are not only popular songs that follow the trend of the times but are songs that have its own value as popular music, I think not to approach these songs from the perspective of amusement. In the future, by studying and developing various musical programs needed for educating popular music, the students should experience music from various era as well as genre, and thereby music would soak into our daily life. It should also allow for students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music class and thereby allowing for the class to be a fruitful one.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이장직, 대중화 시대의 음악, 삼호출판사, 1990,
이우용, PD 이우용의 우리 대중음악 읽기, 창공사, 1996.
Roy Shuker저. 이정엽, 장호연 역,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출판사,
1999.

2. 교과서

-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음악, 서울 : 대한교과서(2002)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2002)
고춘선, 홍종건, 음악, 서울 : 음악세광음악 출판사(2002)
고춘선, 홍종건,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세광음악 출판사(2002)
이강율, 주광식, 김금수, 황 선, 음악, 서울 : 박영사(2002)
이강율, 주광식, 김금수, 황 선,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박영사(2002)
윤경미, 문 진, 음악, 서울 :현대출판사(2002)
윤경미, 문 진,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현대출판사(2002)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음악, 서울 : 도서출판사 태성(2002)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도서출판사 태
성(2002)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음악, 서울 : (주) 두산(2002)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주) 두산
(2002)

정영택, 허화병, 음악, 서울 : (주) 교학사(2002)

정영택, 허화병,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음악 (주) 교학사(2002)

백병동, 최 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음악, 서울 : (주) 천재교육(2002)

백병동, 최 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주) 천
재교육(2002)

3. 정기 간행물

언론문화 저널리즘비평17, 1995.12.

문풍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음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
제2호,

4. 국내 학위 논문

고은혜,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방기석, “음악적 요소 지도를 위한 대중가요의 활용방안”, 학교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은미,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분석 및 실태조사”,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철수,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의 대중음악 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3

전 현, “청소년의 대중음악 선호도에 대한 교육적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7

정수정, “대중음악의 수업적용 방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정진희, “대중음악 선호도와 음악적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정춘희, “청소년의 대중음악 수용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정희리, “음악수업에서 대중음악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실태조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황덕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허수정, “음악교재곡의 다양화를 위한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홍기경, “청소년의 대중음악 심취도와 감성지능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5. 웹사이트

성경희, “포괄적인 음악교육”

<http://www.amadeusclass.or.kr>

<부록 1> 교사 인터뷰지

질문1. 대중음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가르쳐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 현행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들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대중음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5. 대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6. 교과서에 사용될 대중음악 곡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7. 교과서에 사용될만한 대중음악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8.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9.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을 얼마나 가르치고 계십니까?

질문10. 교사들이 대중음악을 가르칠 때 일반 클래식과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 곡 목록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대한 교과 서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김민기	민중 가요
	어디로 갈꺼나	김영동	국악 가요
	상젤리제	디건	상송
	꽃의 속삭임	도니다	칸초네
	돌아와라 쏘렌토로	쿠르니스	칸초네
	Holiday	마이네	팝송
	Love	존 레논	팝송
	Take me home country roads	존 덴버	팝송
	Swing low sweet chariot (참고곡)	컨	흑인 영가
	여름날	거슈윈	재즈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박영사	니나	참피	외국가요
	곤돌리 곤돌라	카로 조네	칸초네
	볼라레	도메 니코	칸초네
	고엽	모두뇨 조제프	상송
	Annie's Song	코스마 존 덴버	팝송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세 광 음 악 출 판 사	나이 서른에 우린	백창우	가요
	겨울아이(참고곡)	박장순	가요
	꽃의 계절	라스킨	외국 가요
	로미오와 줄리엣 (기악합주 참고곡)	로타	영화 음악
	돌아오라 소렌토로 (참고곡)	쿠르티스	칸초네
	Swing low Sweet chariot	킨	흑인 영가
	추억(참고곡)	로이드웨버	뮤직컬
	여유 있게 걸게 친구(참곡곡)	돈베 지그	외국 가요
	I Will Follow him(참고곡)	셰이먼	영화 음악
	그대 있는 곳까지	칼데론	상송
	상젤리제(참고곡)	디건	상송
	Love Me Tender(참고곡)	프레슬리&멧슨	팝송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도서 출판 태성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참고곡)	허광훈	가요
	J에게(참고곡)	이세건	가요
	Young And Free	D.베르크 외	외국 가요
	나의 길(참고곡)	프랑 소와	팝송, 영화 음악
	The Lion Sleep Tonight(기악곡)	L.크리토 외	영화 음악
	My Heart Will Go On(참고곡)	호너	영화 음악
	그대 있는 곳까지	칼데론	상송
	돌아오라 쏘렌토로	쿠르 티스	칸초네
	Memory	로이드 웨버	뮤지컬
	세상 높은 곳에서 (참고곡)	벤티스	팝송
	Yesterday	폴메카트니	팝송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주) 두 산	우리는	송창식	가요
	돌아오라 소렌토로(참고곡)	쿠르티스	칸초네
	라 노비아	호아킨 프리에토	칸초네
	여름날	거슈윈	재즈
	Bye Bye Love	브라이언트	팝송
	Yesterday	폴메카트니	팝송
	사랑의 찬가	모노	상송
	Tonight	레너드 번스타인	뮤지컬
	Sunrise Sunset (기악곡)	헤르믹	영화 음악
	I Will Follow him	세이먼	영화 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주) 교 학 사	향수(참고곡)	김희갑	가요
	Love is Blue (기악합주곡)	안드레 포드	팝송
	Memory(참고곡)	로이드 웨버	뮤지컬
	Beautiful Sunday (참고곡)	Mc Queen	팝송
	Yesterd One More(참고곡)	카펜터즈	팝송
	돌아오라 소렌토로	쿠르티스	칸초네
	물망초	쿠르티스	칸초네
	라 노비아(참고곡)	호아킨프리에토	칸초네
	그대 있는 곳까지 (참고곡)	칼데론	상송
	Chante	베코	상송
	Autumn Leaves(참고곡)	조제프 코스마	상송
	Beauty And The Beast	알란 멘켄	영화 음악
	Moon River(참고곡)	맨시니	영화 음악
	Swing low Sweet chariot	킨	흑인 영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참고곡)	폴사 이먼	팝송
	Sing	라포스	팝송
	Let It Be	폴메카트니	팝송
	I understand	클레 프스	팝송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주) 천 재 교 육	가시버시사랑	이병욱	국악가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웨버	뮤지컬
	마리아 마리	카푸아	칸초네
	I Will Follow him	세이먼	영화음악
	How Deep is Your Love	브라더스	영화음악

출판사	수록된 음악 제목	작곡자	종류
현 대 출 판 사	가시버시 사랑	이병욱	국악가요
	마법의 성	김광진	가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쿠르 티스	칸초네
	When I Dream	메이슨	팝송